

한글 옛 文獻 情報 調査 研究*

— 16世紀의 國語資料를 中心으로 —

韓 在 永

(한신大 敎授)

要約 및 抄錄

이 글은 16世紀 한글 資料들에 대한 現況 把握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現況 把握이란 16世紀 한글 資料들의 所藏者 및 所藏處와 관련한 所藏 現況은 물론이고, 그들 자료에 대한 연구의 現在 結果를 포함한다. 소장 現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자 한 것은 原典 資料에 대한 不斷한 관계 유지를 통하여 당시 言語 現實에 다가서고, 圖書館에 잠자고 있는 자료들에 대하여 認識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각 문헌에 대한 研究 論著 目錄 작성을 통하여 개별 자료들이 연구된 現황을 파악하고자 한 것은 그동안 연구의 資料와 主題 目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 결과이다. 그를 통하여 既存의 연구 대상에서 疏外되어 온 자료의 目錄은 물론 관심의 領域 밖에 존재해 왔던 主題 目錄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조사·연구의 주된 목적은 국어의 史的 研究過程에 필요한 보다 精確한 情報를 提供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 핵심어 : 16世紀 國語資料, 所藏者, 影印本, 資料 目錄, 參考文獻 目錄, 研究 現況

I. 緒 論

본 研究는 한글 文獻의 綜合的인 整理를 위한 基礎的인 情報의 調査에 目的을 두고 있다. 그동안의 國語 文獻 연구의 주된 관심이 한글 創製 이후의 文獻들에 있어 왔으나, 그 연구의 바탕이 되는 한글 文獻 자체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歷史 研究의 出發과 바탕에는 資料가 있

* 이 論文은 2002년도 한신大學校 學術研究費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겠으나, 그간의 歷史 研究의 내용은 상당수가 제공된 影印 資料나 影印 資料를 대상으로 삼은 최근 구축된 電算 入力 資料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연구 태도가 가지는 限界는 自明한 것이라 할 것이다. 제공된 이상의 내용에 다가서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언어의 정확한 현상을 歪曲할 가능성마저도 있기 때문이다. 影印本과 전산 입력 자료가 연구 작업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것이기는 하나, 원본 자료의 검토와 확인 작업은 연구의 정확성은 물론 연구의 주제와 영역을 확장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같은 맥락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에 대한 정보는 연구의 온당한 진행과 결과 도출을 위한 전제가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窮極의인 목표는 한글 創製 이후로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文獻에 대한 현재의 狀況을 綜合的으로 정리하려는 데에 두고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16세기의 文獻에 대한 조사에 보다 積極的인 관심을 두고 진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한글 文獻에 대한 整理 方案을 제시하고, 각 文獻의 중요도를 선정하여 보다 완벽한 국어 연구의 결과 도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를 위하여 본 조사·연구에서는 한글 개별 자료의 總目錄을 作成한 후, 보다 具體的으로 書誌形態의인 내용들과 그동안의 개별 자료의 研究 現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조사·정리하게 된다. 국어의 歷史的 研究의 바탕에 대상 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強調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와 같은 當然한 命題가 充實하게 適用이 되고 있는 시기는 15세기 정도에 머무는 것이 現實인 것이다. 15세기 국어 자료라고 하더라도 새로이 발견되고 있는 자료 현황이라든가, 각각의 단체나 개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電算化의 정도와 같은 문제는 꾸준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의 정보가 낡은 것이 되고 있는 現實인 것이다. 본 연구가 목표로 삼고 있는 한글 文獻에 대한 綜合的인 調査·研究는 국어의 史的 研究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개별 文獻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판단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조사·연구되었어야 할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조사·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전하는 한글 文獻의 종합적인 현황 파악에 두고 있다. 이에선 대상 자료의 소장 현황은 물론, 影印 현황과 번역 그리고 電算化의 정도 및 개별 文獻에 대한 그간의 研究 論著 目錄 작성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방대한 作業量 탓에 본 조사·연구는 16세기의 한글 자료를 일차적인 작업 대상으로 삼기로 하고, 具體的인 研究 論著 目錄 작성도 16세기 국어와 관련한 것에 한하기로 한다. 본 조사·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文獻의 目錄과 조사·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본 조사·연구의 최종적인 대상 文獻은 訓民正音 창제 以後부터 20세기 초에 刊行 또는 筆寫된 한글 文獻 및 文書이나, 작업의 성격과 일정에 비추어 일차적으로는 16세기 문헌을 주된 관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¹⁾ 우선 관심 대상에 드는 자료 目錄은 다음의 (1)과 같다.

(1) 16世紀 資料 目錄

1500 牧牛子修心訣諺解, 法華經諺解, 四法語諺解. 1514 續三綱行實圖. 1517 四聲通解,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고운사판), 翻譯老乞大, 翻譯朴通事. 1518 翻譯小學, 二倫行實圖, 呂氏鄉約諺解, 正俗諺解. 1519 警民編. 1520 禪宗永嘉集諺解(장수사판). 1521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 1523 法華經諺解(復),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석륜암). 1525 簡易辟瘟方,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심원사판). 1527 訓蒙字會. 1535 五大眞言(심원사판),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수발암). 1538 村家救急方. 1539 吏文集覽. 1541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1542 分門瘟疫易解方, 月印釋譜(重, 권21). 1543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중대사). 1545 法華經諺解(復刻本). 1547 法華經諺解(復刻本). 1550 靈驗略抄(重). 1553 佛說大報父母恩重經, 般若心經諺解(심원사 복각). 1554 救荒撮要. 1556 呂氏鄉約諺解. 1558 阿彌陀經諺解(쌍계사판). 1559 月印釋譜(重, 권23), 訓蒙字會(상원군판). 1560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1561 佛頂心經諺解(해탈암 복각). 1562 月印釋譜(重, 권21). 1563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송광사판). 1564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명엽사판). 1565 呂氏鄉約諺解, 般若心經諺解(무량사판). 1567 佛說大報父母恩重經(쌍계사판), 蒙山和尚六道普說. 1568 月印釋譜(重, 권1·2). 1569 月印釋譜(重, 권21), 七大萬法, 眞言集(안심사판), 禪家龜鑑諺解(重). 1572 訓民正音註解本(重刊本), 月印釋譜(重, 권7·8), 念佛作法. 1573 禮部韻略, 內訓(重刊本). 1575 光州千字文, 圓覺經諺解(復刻本). 1576 新增類合. 1577 野雲自警(송광사판), 誠初心學人文(송광사판), 發心修行章(송광사판), 四法語,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송광사판). 1578 簡易辟瘟方. 1579 禪家龜鑑諺解, 重刊警民編

1) 17세기로부터 20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간행된 16세기 자료도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일단 관심의 영역 밖에 두기로 한다. 口訣 資料 목록도 여기서는 일단 排除하기로 한다. 구결 자료는 아직 電算 入力 處理도 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1581 農事直說, 三綱行實圖. 1583 石峰千字文, 誠初心學人文(서봉사판), 發心修行章(서봉사판), 野雲自警(서봉사판). 1584 蒙山和尚六道普說(개심사 개판본). 1586 小學諺解(陶山書院本). 1590 孝經諺解, 大學諺解, 中庸諺解, 論語諺解, 孟子諺解. 1592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희방사판). 1599 法華經諺解.

그렇지만 (1)에 보인 目錄 모두가 우리의 관심 대상인 것은 아니다. 이들 가운데 16世紀 이전에 간행된 자료의 復刻本과 重刊本 그리고 改刊本 등은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작업 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본고의 관심 범위를 16世紀 국어에 한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月印釋譜』나 『佛頂心經諺解』와 같은 자료가 제외된 것은 그러한 까닭에 연유한다.

본 연구의 조사 및 연구 내용은 다음의 (2)와 같다.

(2) 가. 所藏者 및 所藏處 조사 : 原刊本은 물론 重刊本 그리고 復刻本 등도 대상이 된다.

나. 影印本 調査 : 影印 대상이 된 자료의 目錄은 물론 대상으로 삼은 底本을 파악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다. 電子 파일로 入力되었는가의 與否 조사 : 대상 자료가 전자 파일로 입력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라. 각 文獻에 대한 研究 論著 目錄을 작성 : 개별 자료들이 연구된 현황 파악을 위하여, 각 文獻에 관한 그간의 研究 論著 目錄을 작성하여 부록으로 제시한다. 이는 그동안의 연구 대상에서 소외되어온 자료의 目錄은 물론 관심의 영역 밖에 존재해 왔던 주제 目錄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마. 각 文獻에 대한 간략한 解題 : 각각의 文獻에 대한 간략한 解題를 붙여 연구자로 하여금 대상 자료의 선택 과정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²⁾

본 조사·연구는 다음의 (3)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3) 가. 實錄이나 文集 그리고 研究 論著들을 통한 대상 자료의 目錄을 확보한다.

2) 그러나 개별 자료의 내용이라든가 간행 배경 등과 같은 사실에 대한 언급은 가능한 한 자제하기로 한다. 제한된 지면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 나. 각 도서관의 장서 目錄 등을 통한 소장 현황을 파악한다. 그 과정에서 파악한 藏書 番號도 함께 제시하여 연구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 다. 자료 目錄을 파악하기 위하여 검토 대상으로 삼은 연구 논저들의 目錄을 보완하여 개별 文獻에 대한 參考論著 目錄을 작성한다.
- 라. 藏書 目錄을 통한 개별 文獻에 대한 書誌形態的인 정보를 정리하여 가능한 한 확인하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重刊本과 復刻本 등에 대하여서도 충분히 조사하도록 한다.
- 마. 한글 자료에 대한 影印本의 간행 현황을 조사한다. 그러나 影印 資料의 단순한 目錄 나열이 아니라, 影印 資料의 底本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한다. 다양한 重刊本과 復刻本 등이 존재할 때에 底本에 대한 정보는 연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 바. 개별 한글 자료들을 살핌에 있어 개별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국어 외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留意하기로 한다. 아울러 각각의 자료가 가지고 있는 국어 내적인 특징과 의의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피기로 한다.

II. 資料 現況

이제 각 자료들의 具體的인 내용과 현전 형태 등을 간단히 살피고, 소장 현황을 아울러 정리하여 보기로 하자. 정리의 편의를 위하여 16世紀 자료들을 내용과 성격에 따라 儒敎·佛敎·醫學·譯學·詩歌·語彙·諺簡·口訣·韻書 등으로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각각의 내용별 분류 안에서는 刊行年代 순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자료의 성격과 내용에 관한 解題는 기본적으로 安秉禧(1979)를 취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1. 儒敎 關係 한글 資料

1) 『續三綱行實圖』

中宗의 命에 의해 간행된 책으로, 刊年은 1514年(中宗 9)이다. 原刊本은

서울大圖書館 가람文庫와 日本의 東洋文庫에 所藏되어 있다. 傍點과 ‘△’, ‘○’은 물론이고, 혼란되었으나 ㅅ 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漢字音 表記도 『東國正韻』에 따른다.

日本의 內閣文庫와 國會圖書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臺灣의 中央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다고 한다.³⁾ 欄上 諺解는 한글만으로 되었는데, 傍點과 ‘ㅅ’, ‘△’은 없어지고 ‘ㅇ’이 쓰인다. 이 『續三綱行實圖』는 16世紀에 刊行되었으면서도 15世紀 中葉의 資料에 나타나는 言語 事實과 비슷한 점에서 매우 특이한 자료라 할 것이다. 弘文閣에서 影印本을 간행한 바 있다. 각 소장처의 장서 번호는 다음의 (4)와 같다.⁴⁾

- | | |
|---|----------------------------------|
| (4) ① <가람 古貴 170.951-Si62s> | ② <古 1149-7> |
| ③ 國(한-57-가739) | ④ 日本 東洋文庫 XI-4-B-3 ⁵⁾ |
| ⑤ 日本 內閣文庫(國立公文書館299-0154) ⁶⁾ | ⑥ 日本 國會圖書館(820-3), (WA-36-7) |

2) 『翻譯小學』

小學의 大文을 諺解한 책으로, 모두 10권 10책이다. 南袞의 跋文 年代인 1518年(中宗 13)에 原刊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原刊本은 전하지 않는다. 16世紀 末期 내지 그 이후의 重刊本이 零本으로, 卷8(高麗大圖書館), 9(서울大圖書館 가람文集), 10(國立中央圖書館)이 전한다. 이들은 木版本인데, 乙亥字本の 覆刻이므로 原刊本은 乙亥字本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 책은 지나치게 意譯에 흘렀다고 할 정도로 일반 諺解의 文體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귀중한 資料가 된다. 일반에 널리 소개되지는 않았으나 권 3, 4가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6, 7, 8, 9, 10은 弘文

-
- 3) 臺灣의 中央圖書館 소장본에 관해서는 미처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추후 보완할 예정이다.
 - 4) 장서 번호에 사용되는 ‘< >’는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임을 나타내고, ‘國’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임을 뜻한다. 또한 ‘藏’은 藏書閣 소장본임을 의미한다. 그 밖의 소장처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 적기로 한다.
 - 5) 일본 소재 소장처와 소장 현황에 관해서는 明星大學에 계신 하야시(林雄介) 교수의 절대적인 도움에 기댄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아울러 동국대학교의 오태석 교수와 誠巖文庫의 김철주 선생께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역시 감사드린다.
 - 6) 內閣文庫 소장본은 현재 國立公文書館에 가 있다.

閣에서 影印本을 간행하였다. 소장 현황은 다음의 (5)와 같다.

- (5) ① 國(古1256-21) ② 國(한-16-77)
 ③ 高麗大學校 圖書館：貴 101 ④ <가람 古貴 170-B45s-V.9>
 ⑤ 國立中央圖書館：한貴古朝16-76

3) 『二倫行實圖』

1518年(中宗 13) 慶尙道 觀察使 金安國이 曹伸에게 편찬시켜 金山郡(현재의 金泉)에서 간행한 책이다. 『三綱行實圖』의 體裁를 그대로 본뜬 책으로, 原刊本은 玉山書院(慶尙北道 月城郡)의 獨樂堂과 梨花女子大學校에 소장되어 있다. 前者는 1539年(中宗 34, 嘉靖 18) 李彦迪에게 內賜된 책인데, 金山郡에서 印出하여 頒賜한 것이다. 이 밖에 覆刻本과 改刊本이 전한다. 覆刻本은 日本 東京의 內閣文庫에 소장되어 있는데, 插畫와 魚尾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諺解(10a에 방점이 없는 따위)도 다르다. 改刊本은 1579年(宣祖 12)의 內賜本이 金城一宗家(慶北 安東)에 있으며, 이 계통의 책이 李崇寧 선생 所藏으로도 있다. 그 밖에 1727年(英祖 3)의 平壤版과 1730年의 各道 監營版이 전한다. 석주연(2001:129)에 의하면 大英博物館의 未整理 圖書 目錄에서 『二倫行實圖』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欄上의 諺解가 國語史 資料로 이용되는데, 原刊本은 傍點과, 혼란되었으나 ‘△’도 나타나고 간혹 특이한 語彙도 보인다. 改刊本인 1579年版은 傍點과 ‘△’이 폐기되고 ‘○’이 終聲 表記로만 쓰인다. 諺解도 사뭇 달라진 곳이 있다. 原刊本과 1727年版은 1978年 東洋學研究所에서 警民編과 함께 影印으로 간행하였다. 소장 현황은 다음의 (6)과 같다.

- (6) ① <가람 古 170, 951-G413> ② <奎 2074.7911> ③ <古 1149-13, 古 複 1149-13>
 ④ <-養 古 170.951-G413> ⑤ <奎 137.3502> ⑥ <想白 古 177.6-J569i>
 ⑦ 國(古 155-5) ⑧ 國(古 M155-11) ⑨ 國(古 M155-13)
 ⑩ 藏(2-451) ⑪ 이화여대 : 고 170 김 71 ⑫ 이화여대 : 고 170 김 71 B
 ⑬ 日本 東京의 內閣文庫(國立公文書館 子248-0004)

4) 『朱子增損呂氏鄉約』

呂氏鄉約으로 略稱된다. 呂氏鄉約은 11世紀 後半期 中國 陝西省의 呂氏가

지는 鄉約을 朱子가 添削을 하고 註釋을 달아서 만든 책이다. 이 原典의 漢文에 借字로 口訣을 달고 諺解를 덧붙여서 1518年(中宗 13) 金安國이 慶尙道에서 간행한 것으로, 그 이후에 여러 차례 重刊되었다.

原刊本으로 추정되는 책을 비롯하여 여러 異本이 전한다. 原刊本으로 보이는 책은 日本 東京의 尊經閣文庫 所藏本이며, 이보다 늦은 刊本은 刊年未詳의 乙亥字本인 高麗大圖書館 華山文庫 所藏本과 역시 乙亥字本인 1574年版(宣祖 7)과 그 覆刻本들이다. 1574年版은 가장 널리 알려진 책인데, 李熙昇, 李謙魯, 誠巖文庫⁷⁾ 등의 소장이 있다. 이들 異本은 서로 諺解는 물론이고 原典의 漢字까지도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1574年版은 대체로 補正을 거친 것으로, 이 補正을 통하여 단순한 誤印의 校正뿐 아니라 語彙 變遷에 말미암은 單語의 交替도 이루어졌다.⁸⁾

이 책은 原刊本이 나온 뒤로 60年 사이에 적어도 두 번 重刊된 일이 있으므로, 이들을 비교함으로써 正書法과 語彙의 變遷을 볼 수 있다. 尊經閣本은 體言의 未子音을 二重으로 적는 데 대하여 餘他의 異本은 한 번 적고, 尊經閣本과 華山本の ‘붓(助詞), 든주우리-(趨)’가 1574年版은 ‘긔, 드라나-’로 된 따위다. 助詞 ‘붓’은 1574年版의 未補正版에도 나타나므로, 인쇄한 뒤에 ‘긔’로 修正한 것이다. 이들 刊本은 1976年 東洋學研究所에서 影印하였다. 소장 현황은 다음의 (7)과 같다.

- (7) ① <가람 古貴 352-G413> ② <一蓑 古 170-J868> ③ <一蓑 古貴 170-J868>
 ④ <一蓑 古 170-J868> ⑤ 國(古M 1573-2) ⑥ 國(한-28-35)
 ⑦ 國(한-28-2) ⑧ 藏(3-139)
 ⑨ 日本 東京의 尊經閣文庫(史部-職官政書法家諸書類-) ⑩ 誠巖文庫 3-540
 ⑪ 高麗大圖書館 華山文庫: 貴 5A ⑫ 李熙昇 ⑬ 李謙魯

5) 『正俗諺解』

正俗篇을 번역한 책이다. 正俗篇은 風習을 바로잡기 위하여 孝父母, 友兄

7) 誠巖文庫 所藏의 諺解 없이 原典의 漢文에 借字로 口訣만 단 책이 있다. 刊記가 ‘正德 十三年 戊寅(1518) 9月 日 羅州開刊’으로 되어, 3月 刊行인 諺解의 原刊本보다 6개월 늦은 刊本이다.

8) 17세기 후반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補正되지 않은 책이 延世大 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찾은 장서 목록 번호는 귀중본으로 분류되어 있는 ‘O 081.2 95가-934’이다.

弟 등 18條目에 걸쳐 설명한 敎化書이다. 1518年(中宗 13) 慶尙道 觀察使 金安國이 『呂氏鄉約』과 함께 慶尙道에서 原文에 借字로 口訣을 달고 번역하여 간행하였다.

漢文의 原文이 1行 16字本과 1行 21字本인 두 刊本이 널리 유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18세기경의 重刊本인데, 近者 壬辰亂 이전의 木版本(李源周 교수 소장)이 발견되었다. ‘△’, ‘ㅇ’ 등이 나타나고 重綴 등 正書法의 特徵이 尊經閣本 『呂氏鄉約』과 비슷하다. 18세기 重刊本으로 믿어지는 한 책이 1977年 原文社에서 華山文庫本 『呂氏鄉約』과 함께 影印되었다. 소장 현황은 다음의 (8)과 같다.

- (8) ① <奎 15583> ② <一蓑 古 170-G413j> ③ <一蓑 古 170-G413ja> ④ 李源周

6) 『重刊警民編』

1519年(中宗 14) 金正國이 百姓을 경계하기 위하여 편찬하여 간행한 책이다. 현재 原刊本은 없고, 1579年(宣祖 12)과 近代의 重刊本만 전한다. 1579年版은 慶尙道 觀察使 許曄이 君上이란 1條目を 첫머리에 덧붙여 慶州, 尙州, 晋州, 靑松에서 간행하였다. 이 중 晋州에서 간행된 책이 日本의 筑波大學 中央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近代의 重刊本은 1658年(孝宗 9) 李厚源이 古靈陳囊의 仙居勸論文 등을 添錄하여 간행한 것을 비롯하여 數種이 있으나, 1579年版을 전혀 참고하지 않은 것이다.

1579年版은 條目を 단위로 原文에 借字로 口訣을 달고 한글만으로 諺解하였다. 傍點은 폐기되었고, ‘ㅇ’은 終聲에만 쓰였으며, ‘△’은 두어 예만 있을 뿐이다. 1978年 東洋學研究所에서 『二倫行實圖』와 함께 影印된 일이 있다. 소장 현황은 다음의 (9)와 같다.

- (9) ① 日本 筑波大學 中央圖書館 Δ216-16⁹⁾
 ② <奎 1345, 1358, 2540, 2541, 3021~3027, 3029>
 ③ <一蓑 古 340.0951-G421gb> ④ <一蓑 古 340.0951-G421g>
 ⑤ <一蓑 古 340.0951-G421gd> ⑥ <一蓑 古 340.0951-G421gc>
 ⑦ <奎 21847> ⑧ <가람 古 340.0951-G421g>

9) 筑波大學의 전신은 東京教育大學이었다.

7) 『小學諺解』

宣祖의 命令으로 小學을 諺解하여 간행한 6권 4책의 活字本이다. 刊年은 跋文의 年代에 따르면 1587年이 되지만, 內賜本의 年代에 따르면 1588年이 된다. 慣例에 따라 1588年을 刊年으로 삼는다.

原刊本の 全帙은 安東의 陶山書院(1588年 1月 內賜本)에 있고, 零本の 所藏은 더러 있다. 覆刻本도 零本으로 전하는데, 壬辰亂 이후의 책으로 보인다. 이 資料는 中世語 末期의 것으로서, 傍點과 ‘△’, ‘○’까지 갖는 점에서 특이하다. 原刊本은 1974年 大提閣에서 影印되었다. 陶山書院 이외의 소장 현황은 다음의 (10)과 같다.

- (10) ① <奎 443, 1872, 2112, 2113, 2326, 2918, 11958의1~4, 11958의8, 2115~2117, 2444, 2445>
 ② <一蓑 古 181.1-So25e-v.1-3> ③ <一蓑 古 181.1-So25eh-v.1,6>
 ④ <一蓑 古 181.1-Y57sa> ⑤ <一蓑 古 181.1-So25d-v.5-6>
 ⑥ <一蓑 古 181.1-So25b-v.2> ⑦ <가람 古 181.1-So25o-v.3-4>
 ⑧ <가람 古 181.1-So25c> ⑨ <가람 古 181.1-So25ce>
 ⑩ <가람 古 181.1-So25c-v.5> ⑪ <가람 古 181.1-So25-v.6>
 ⑫ 國(한-41-11) ⑬ 國(한-41-11-2) ⑭ 國(한-41-11-3)
 ⑮ 國(古 1256-22) ⑯ 國(일산古 1256-12) ⑰ 國(古 1256-25)
 ⑱ 國(고 1256-2) ⑲ 國(貴-54, 한-15-85) ⑳ 藏(3-42, 43)

8) 가. 『大學諺解』

大學의 原文에 한글로 따를 달고 언해한 不分卷 1책 活字本이다. 原刊本은 ‘萬曆十八年七月日’의 內賜記가 있어서 1590年(宣祖 23)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原刊本은 앞의 2장이 落張인데 陶山書院에 소장되어 있다. 內賜記는 없으나 陶山書院本과 同一한 板本이면서도 처음의 두 장이 갖추어진 책이 대영도서관에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

원문과 諺解文의 漢字에는 漢字音이 달려 있는데, 漢字音은 東國正韻式 漢字音에 따르지 않고 現實 漢字音에 따라 표기된 것이다. 傍點도 달려 있고 ‘△’과 ‘○’도 사용되고 있다.

10)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석주연(2001:123~6)을 참조할 것. 大英圖書館의 소장 번호는 석주연(2001)에서 취한 것이다.

이 책은 近代國語 時期에 간행된 異本도 많다. 이들은 10행 19자본, 10행 17자본, 10행 23자본으로 대별된다. 原刊本에 보이는 국어학적 특징을 보면, ‘△’이 사용되었으나 대부분 ‘ㅇ’으로 변화하였고, ‘ㄷ’과 ‘ㅅ’은 語末子音에서 구별되어 표기되었으며, 子音同化 현상이 표기상에 나타난다. 또한 語中の 된소리를 표기하기 위하여 ‘흙거시라(15b), 삼음거시(23b)’와 같은 표기도 쓰이었다.

陶山書院本은 중세국어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어사 연구의 훌륭한 자료가 되며, 기타의 異本들은 국어사 중 音韻變化를 고찰하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된다. 陶山書院本은 1974년 漢陽大學校 國學研究院에서, 그리고 1976년에 大提閣에서 각각 影印하였다. 내각장판본도 大提閣에서 影印하였다. 陶山書院 이외의 소장 현황은 다음의 (11)과 같다.

- (11) ① 國(古 1238-54) ② <奎 4027>
 ③ <奎 735, 1435, 1445, 2015, 2036, 3060, 3997>
 ④ 藏(1-143) ⑤ <·叢 古 181.1-D13> ⑥ <가람 古 181.1-D13e>
 ⑦ <·叢 古 181.1-D13e> ⑧ <奎 78, 742, 867~880, 1074, 1279, 1410~1412, 1415, 1416, 1449, 1450, 1461~1463, 1481, 1482, 1558>
 ⑨ <奎 78, 1090, 1092> ⑩ <奎 745, 1280, 1281, 1452, 1453, 1480>
 ⑪ 國(한-09-가2) ⑫ 國(일산古 1238-24) ⑬ 國(일산古 1238-18)
 ⑭ <奎 1087, 1405, 1458~1460, 3532, 3686> ⑮ <奎 1094~1098, 1888, 1946, 3422, 4004> ⑯ 國(한-09-가2-2) ⑰ 國(한-09-가3)
 ⑱ 國(한-09-가3-2) ⑲ 國(한-09-가3-3) ⑳ 國(한-09-가3-4)
 ㉑ 國(무구재古 1238-47) ㉒ <奎 1053, 1091, 7687> ㉓ 大英圖書館 : 15500. f. 3

나. 『中庸諺解』

中庸의 원문에 한글 토를 붙이고 언해하여 1590년(선조 23)에 校正廳에서 活字本으로 간행한 不分卷 1冊이다. 陶山書院에 소장되어 있는 原刊本에는 ‘萬曆十八年七月日’의 內賜記가 있다. 傍點이 붙어 있고 ‘△’과 ‘ㅇ’이 사용되고 있다. 中庸諺解는 다른 四書諺解와 마찬가지로 여러 번 중간되어 近代國語 시기의 異本이 많다. 陶山書院 이외의 소장 현황은 다음의 (12)와 같다.

- (12) ① <·叢 古 181.1-J959eh> ② <奎 2037, 3036, 3763> ③ <奎 3033, 3589, 7877>
 ④ <가람 古 181.1-J959s> ⑤ <·叢 古 181.1-J959>
 ⑥ <奎 434, 443~450, 452~453, 455, 900, 1204~1207, 3685>

- ⑦ <·冀 古 181.1-J959ea> ⑧ <가람 古 181.1-J959>
 ⑨ <奎 677, 678, 744, 815>
 ⑩ <奎 80, 204, 454, 456, 962, 11966>
 ⑪ <奎 368, 370, 375, 380, 385~389, 391, 392, 422~429, 435, 480, 492~494, 995, 1011, 1290~1293, 1417, 1434, 1436, 1437, 1560~1562, 1740, 1749, 2876>
 ⑫ <奎 1430, 11967, 11968> ⑬ <奎 814, 1062, 1874, 1887, 3590>
 ⑭ <奎 451, 11965> ⑮ <·冀 古 181.1-J959e> ⑯ 國(의산古 1238-43)
 ⑰ 國(古 1238-43) ⑱ 國(한-09-나1-5) ⑲ 國(한-09-나1)
 ⑳ 國(한-09-나1-3) ㉑ 國(무구재古 1238-48) ㉒ 國(한-09-나1-4)
 ㉓ 國(古 1238-3) ㉔ 國(한-09-나1-2) ㉕ 國(무구재古 1238-49)
 ㉖ 藏(1-148) ㉗ 藏(1-149) ㉘ 藏(1-150)

다. 『論語諺解』

論語의 原文에 吐를 달고 諺解한 4권 4책의 活字本이다. 原刊本이 陶山書院에 소장되어 있다. ‘萬曆十八年七月日’이라는 內賜記로 보아 1590년(선조 23)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原文인 漢文을 앞에 싣고 뒤에 諺解를 붙이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원문에는 한글로 된 토와 漢字音이 있고, 諺解文에도 한자와 漢字音이 표기되어 있다. 諺解文과 現實 漢字音에 따라 표기된 漢字音에는 傍點이 찍혀 있다. ‘△’과 ‘ㅇ’도 사용되고 있다.

이 책은 近代國語 시기의 여러 異本이 전하지만, 陶山書院本은 原刊本으로서 傍點을 가지는 최후의 文獻으로 中世國語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어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다른 異本들도 中世國語에서 近代國語로 변하는 과정의 국어사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소장되어 있는 異本들의 目錄도 함께 제시한 것은 그 때문이다. 陶山書院本은 1974년 漢陽大學校 國學研究院에서 影印하였고, 다시 1976년 大提閣에서 影印하였다. 陶山書院 이외의 소장 현황은 다음의 (13)과 같다.

- (13) ① 國(한-09-다2-1) ② 國(한-09-다2-2) ③ 國(한-09-다2-3)
 ④ 國(한-09-다2-4) ⑤ 國(古 1239-83) ⑥ 國(무구재古 1239-70)
 ⑦ 國(古 1239-8) ⑧ 國(古 1239-10) ⑨ 國(무구재古 1239-80)
 ⑩ 國(古 1239-85) ⑪ 國(古 1239-9) ⑫ 國(승계古 1239-56)
 ⑬ 國(일산古 1239-24) ⑭ <奎 3057의3, 3058, 3064, 3779>
 ⑮ <奎 3062의1, 3062의2, 3457의1, 3463, 3469, 3934>
 ⑯ <奎 97, 98, 510, 515~518, 899, 2863, 3689>
 ⑰ <奎 394~406, 410, 437~439, 468, 469, 511의2, 526, 560~562, 679, 1005,

- 1295, 3061, 3457의4> ⑮ <奎 371, 421, 467, 527, 559>
 ⑲ <奎 1919, 2038, 2882> ⑳ <가람 古 181.1-N731e-v.1-4> ㉑ <奎중 6560의1>
 ㉒ <奎중 6560의2> ㉓ <·叢 古 181.1-N731e-v.2> ㉔ <·叢 古 181.1-N73h>
 ㉕ <奎중 6560의3> ㉖ <·叢 古 181.1-N731e> ㉗ <奎 3457의2>
 ㉘ 國編 中 A9D-1 ㉙ 藏(1-163) ㉚ 藏(1-164)
 ㉛ 藏(1-165)

라. 『孟子諺解』

孟子의 원문에 한글로 토를 달고 언해한 14권 7책의 活字本이다. 宣祖의 명에 따라 1590년(선조 23)에 校正廳에서 간행한 책으로, 陶山書院에 소장되어 있는 原刊本에는 ‘萬曆十八年七月日’의 內賜記가 있다. 傍點이 찍혀 있고, ‘△’과 ‘○’도 쓰이고 있으며, 원문과 諺解文의 한자에는 現實 漢字음에 따라 표기된 漢字音도 달려 있다. 이 책도 朝鮮時代에 여러 번 刊行되어 異本이 많다.¹¹⁾ 原刊本이 활자본인 데 비해 肅宗 때의 책은 木活字本이고 나머지는 木版本이다. 이 밖에 正祖 때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丁酉活字本이 있다.

表記上으로 볼 때 原刊本이 傍點 表記 및 ‘△’과 ‘○’을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 이후의 간본들은 傍點이 표기되지 않고, ‘△’과 ‘○’이 혼용되고 있거나, ‘△’과 ‘○’까지도 全面的으로 廢棄하고 있다. 陶山書院本은 1974년 漢陽大學校 國學研究院에서 影印하였고, 이를 다시 1976년 大提閣에서 影印하였다. 소장 현황은 다음의 (14)와 같다.

- (14) ① <·叢 古 貴 181.1-M268eo> ② <奎 1886, 1920, 2880, 3465>
 ③ <奎 524, 3057, 3464, 3466의2, 3912>
 ④ <·叢 古 181.1-M268e-v.13-14> ⑤ <奎 2864, 5447의1>
 ⑥ <奎 408, 409, 412, 419~420, 430~432, 436, 470, 495~496, 499, 500, 503~504, 519~523, 693, 803, 806, 881, 895, 939, 1666, 1780>
 ⑦ <奎 411, 529, 533, 802> ⑧ <奎 2101, 5447의2>
 ⑨ <가람 古 181.1-M268-v.1-7> ⑩ <奎중 6540>
 ⑪ <·叢 古 181.1-M268e-v.7-8> ⑫ <古 181.1184-M268m-v.11>
 ⑬ <·叢 古 181.1-M268ea> ⑭ <奎 26635>
 ⑮ 國(古 1239-8) ⑯ 國(무구재古 1239-78)
 ⑰ 國(古M 1239-20) ⑱ 國(한-09-라3) ㉑ 國(한-09-라3-3)

11) 석주연(2001:129)에 따르면 大英博物館의 未整理 圖書 目錄에서 『孟子諺解』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확인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② 國(古 1239-82)

② 國(의산古 1239-63) ② 國(승계古 1239-53)

② 國(1-167)

② 藏(1-168)

② 藏(1-169)

9) 『孝經諺解』

宣祖의 命令에 따라서 『孝經大義』와 함께 간행한 것이라 한다. 校正廳에서 편찬한 것으로 推定된다. 刊年은 內賜記에 따라서 1590年(宣祖 23)으로 잡는데 『四書諺解』와 같은 해다.

原刊本은 日本의 尊經閣文庫(內賜本)에 완전한 상태로 전하고, 國內에도 있으나 상태가 좋지 않다. 위의 『四書諺解』와 마찬가지로 傍點과 ‘△’, ‘○’이 나타난다. 尊經閣文庫 所藏本은 1963年 <朝鮮學報> 27집에 影印되었다. 소장 현황은 다음의 (15)와 같다.

(15) ① <古 1328-2>

② <古 181.117-H998>

③ 藏(1-140)

④ <奎 143~159, 1778~1781>

⑤ <奎 3661, 3662, 3664>

⑥ 國(한-08-1-1)

⑦ < -叢 古 181.1-H998e>

⑧ 國(古 1236-15)

⑨ 國(古 1236-22)

⑩ 國(古 1236-23)

⑪ 國(한-08-1-2)

2. 佛敎 關係 한글 資料

1) 『父母恩重經諺解』

『父母恩重經』에 대한 翻譯과 刊行에 관한 記錄은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最古本이 1553年(明宗 8) 京畿 長端 華藏寺版이므로 늦어도 16世紀 中葉에 翻譯하여 간행된 것이다.

最古本인 위의 華藏寺版은 현재 볼 수 없고,¹²⁾ 國內 現存本 중에서는 1563年(明宗 18) 全羅道 松廣寺 刊行의 책이 가장 오래다. 後刷本인데, 서울大圖書館 一叢文庫와 高麗大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위 華藏寺版의 書影과의 對照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책은 華藏寺版이나, 그에 앞선 原刊本の 覆刻이라 하겠다. ‘△’과 ‘○’은 혼란되지만 나타나고, 傍點이 없다. 傍點 表記가 止揚된 初期文獻인 것이다. 이 밖에 覆刻本으로 보이는 辰亂 이전의 刊本이 數種 있다. 1564年(明宗 19) 黃海道 明集寺版, 1567年

12) 석주연(2001:126)에 의하면 小倉文庫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

(明宗 22) 은진 雙溪寺版, 1592년(宣祖 25) 豊基 喜方寺版, 刊年 未詳의 全州 安心寺版이 그것이다. 그 밖에 傍點을 가지고 있어 原刊本の 復刻本으로 추정되는 大英博物館에 전한다.¹³⁾

喜方寺版과 安心寺版은 近者の 刷出本이 널리 유포되어 있다. 소장 현황은 다음의 (16)과 같다.

- (16) ① 國(위창古 1748-3) ② 國(한-21-438) ③ 國(위창古 1748-2)
 ④ 國(한-21-397) ⑤ 國(한-21-347) ⑥ 國(한-21-319)
 ⑦ 國(일산古 1741-7) ⑧ <·袁 古 294.34-B872ba> ⑨ <古 1730-33>
 ⑩ <奎 7537~7539, 7541> ⑪ <奎 3561> ⑫ <奎중 1987>
 ⑬ <古 1730~89> ⑭ <奎중 379> ⑮ <古 1730-37>
 ⑯ <古 1730-103> ⑰ <古貴 294.318-B878> ⑱ <古 1730-104>
 ⑲ <奎중 2399~2404> ⑳ <가람 古 294.34-B872a> ㉑ 藏(3-226)
 ㉒ 藏(3-227) ㉓ 高麗大學校 圖書館: C3-A35 ㉔ 高麗大學校 圖書館: C3-A35D
 ㉕ 大英圖書館: Or. 74. b. 3

2)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六字禪定』으로 略稱되는 책으로, 1560年(明宗 15) 平安道 肅川府(현재 平安南道 平原郡의 肅川)에서 간행한 것이라 한다. 原典에 한글로 口訣을 달고 諺解를 한 책이나, 漢字로 된 原典의 本文에 한글로 口訣을 단 行과 한글로 漢字 讀音과 口訣을 쓴 行을 짝진 形式이 특이하다.

현재 이 책은 國立中央圖書館에만 소장된 唯一本이다. 16世紀 中葉 平安道에서 처음으로 간행된 자료로서 소중하다. 특히 傍點이 완전히 폐기된 文獻인 점에서 初期 無傍點 文獻의 하나인 것이다. 이 밖에 漢字音, 形態論 등에 있어서도 흥미 있는 資料를 제공하는 文獻이다. 소장 현황은 다음의 (17)과 같다.

- (17) ① 國(古 1784-15) ② 國(貴-395, 한-21-199) ③ 國(貴-53, 한-21-140) ④ 國(古 176-15)

3) 『眞言集』

여러 陀羅尼를 梵字로 적고 한글과 漢字로 音譯한 책이다. 『五大眞言』과 같은 形式의 책이나, 이 책에서는 한글 音譯, 漢字 音譯, 梵字의 順序로 된

13)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석주연(2001:126~9)을 참조할 것.

것이 다르다. 刊記에 의하면 1569年(宣祖 2) 全羅道 安心寺에서 간행한 것이다.

原刊本이 널리 流布되어 있다. 刊年이 壬辰亂 이전이므로, 壬辰亂 이후의 重刊本은 있으나 이전의 重刊本은 없다. 跋文에서 雪嶺은 모두 占法대로 쓰고 自述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나, 眞言의 한글 音譯은 다른 眞言 音譯과 꼭같지 않다. 또한 한글 字母의 用法을 설명한 卷頭の 諺本과 梵字를 한글로 설명한 悉曇章도 특이한 자료다. 소장 현황은 다음의 (18)과 같다.

- | | | |
|---------------------------|--------------------|----------------|
| (18) ① <古 1730-59> | ② <古 294.315-J563> | ③ <古 1730-79> |
| ④ <-龔 古 294.33-Y8j-v.1-2> | | ⑤ <古 1730-45> |
| ⑥ <奎 7704> | ⑦ <奎 3143> | ⑧ <古 1730-59A> |
| ⑨ 國(貴-50, 한-21-187) | ⑩ 國(한-21-390) | ⑪ 國(한-21-337) |
| ⑫ 國(古 1788-15) | ⑬ 國(유창古 1798-8) | ⑭ 國(古 1740-16) |
| ⑮ 藏(3-262) | ⑯ 藏(3-263) | ⑰ 藏(3-264) |
| ⑱ 國編 C4-22 | ⑲ 國(한-21-226) | |

4) 『禪家龜鑑』

休靜(號 淸虛, 西山)의 漢文本 『禪家龜鑑』을 諺解한 책이다. 漢文本은 1564년에 著述이 완성된 것이나, 그 간행은 1579年(宣祖 12)의 일이다. 그런데 諺解本の 原刊은 1569年の 일이므로, 諺解의 原典은 漢文本의 刊本이 아니라 原稿本이다. 諺解本(上下 2권)의 原文과 漢文本의 刊本(不分卷)과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原刊本은 서울大圖書館과 李基文 교수의 所藏이다. 原刊本에는 약간의 誤字도 있어서 善修(號 淨休, 弘覺登階)의 校正으로 1610年(光海 2) 全羅道에서 重刊되었다. 이 重刊本の 冊板은 아직도 順天의 松廣寺에 있다. 소장 현황은 다음의 (19)와 같다.

- | | | |
|--------------------------|-------------------------------|------------------------|
| (19) ① 國(古 1798-2) | ② <古 1840-12> | ③ <古 1840-21A> |
| ④ <奎 7349> | ⑤ <古 1840-21> | ⑥ <-龔 古 294.315-H999s> |
| ⑦ <-龔 古 貴 294.315-H999s> | | ⑧ 國(古 1799-8) |
| ⑨ 國(古 1799-9) | ⑩ 國(위창古 1798-12) | ⑪ 國(貴-62, 한-21-458) |
| ⑫ 國(한-21-43) | ⑬ <-龔 古 294.315-H999se-v.1-2> | ⑭ 國(한-21-370) |
| ⑮ 國(古 170-1-2) | ⑯ 國(古 170-1-3) | ⑰ 國(古 170-1-4) |
| ⑱ 國(古 170-1) | ⑲ 國(東谷古 1799-10) | ⑳ 李基文 |

5) 『七大萬法』

著者 未詳의 佛書로서, 현재 전하는 책은 國漢混用文으로만 되어 있고 漢文이 없으므로 諺解本이라 할 수는 없다. 原刊은 刊記에 의하면 1569年(宣祖 2) 慶尙道 豊基의 喜方寺(池叱方寺)에서 행해졌다. 그 이후의 重刊이 없다. 이 책은 현재 後刷本이 많이 流布되어 있다. 傍點이 없고, ‘△’과 ‘○’이 쓰였으나 混亂이 있다. 1974年 『古典語文學精粹』(景仁文化 刊)라는 이름으로 영인되어 수록되었다. 소장 현황은 다음의 (20)과 같다.

(20) ① <가람 古 294.31-C437>

② <古 1730-23>

6) 『念佛作法』

念佛儀式에 쓰이는 각종 眞言, 偈頌, 發願文 등을 수록한 책이다. 현재 전하는 책(成均館大圖書館 소장)은 ‘隆慶 6年 壬申(1572, 宣祖 5) 4月 開刊於千佛山開天寺云云’의 刊記가 있다. 原刊이기보다는 覆刻本으로 보인다.

漢文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義相和尚西方歌』는 國漢文의 景幾體歌로 國語學의 研究資料가 된다. 소장 현황은 다음의 (21)과 같다.

(21) 成均館大學校 圖書館 : C04-0055

7) 『誠初心學人文・發心修行章・野雲自警序』

3권을 合本한 책인데, 모두 우리나라 高僧의 著述이다. 3권을 합쳐 『初發心自警』이라 하여 佛家 初入門者 必讀의 책으로 되어 있다.

壬辰亂 이전에 原典의 本文에 한글로 讀音과 口訣을 달고 諺解한 책이 2종 있다. 1577年(宣祖 10) 全羅道 松廣寺와 1583年¹⁴⁾ 京畿道 龍仁의 光敎山 瑞峯寺에서 간행한 것이 그것이다. 前者는 혼한 책이나, 後者는 매우 드물어서 嶺南大圖書館과 日本 東京大學의 小倉進平 舊藏本이 전할 뿐이다. 이들은 독립하여 諺解된 듯하여, 原典 大文의 分節, 諺解, 漢字 讀音의 表記 등이 다르다.

松廣寺版은 15世紀末 成宗代의 『佛經諺解』와 비슷한 文體를 보여주지만,

14) 刊記에 적힌 ‘萬曆十年癸未八月日’은 ‘萬曆十一年癸未八月日’의 잘못이다. 안병희(1979:144)를 참조할 것.

刊年에 따라 16世紀末의 자료로 다루어야 한다. 이 책에는 傍點 表記가 있으나 극히 形式的이고, ‘△’의 使用도 혼란되어 있다. 특이하게도 口蓋音化가 나타나는데, 固有語는 例가 2개뿐이나 漢字 讀音의 表記에서는 ‘디다더’ 등이 ‘지자저’ 등과 변별되지 못하고 있다. 中央에서 간행된 책에는 이보다 훨씬 後代의 문헌에도 口蓋音化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책의 구개음화는 全羅道方言의 그것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瑞峯寺版은 傍點과 ‘ㅇ’이 없고 구개음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諺解의 語彙와 文法도 松廣寺版과는 달리 近代語 모습에 가깝다. 아직 이들은 完帙의 影印本이 없다. 松廣寺版의 『誠初心學人文』과 『發心修行章』이 1978年 <명지어문학>(明知大 國語國文學科) 10호에 영인되었다. 松廣寺版의 『野雲自警序』는 同誌 11호에 영인되었다. 다음의 (22)는 『誠初心學人文』의 소장 현황을 보인 것이고, (23)은 『發心修行章』의 소장 현황을 보인 것이며, (24)는 『野雲自警序』의 소장 현황을 보인 것이다.

(22) ① <想白 古貴 294.34-J563> ② <-養 古貴 294.34-J563ge>

- ③ 國(貴-26, 한-21-301) ④ 藏(3-191) ⑤ 國(古 1798-21)
 ⑥ 國(한-21-439) ⑦ 國(古 1798-29) ⑧ 國(古M 1799-4)
 ⑨ 嶺南大學校 圖書館: 고 224.4 지눌 ⑩ 嶺南大學校 圖書館: 고 224.4 계초심
 ⑪ 日本 東京大學 文學部 小倉文庫: 4626

(23) ① 國(한-21-42) ② <가람 古 294.302-W49b>

- ③ <-養 古貴 294.302-W49b> ④ 日本 東京大學 文學部 小倉文庫: 4530

(24) ① <-養 古貴 294.318-Y28>15) ② 日本 東京大學 文學部 小倉文庫: 4836

8) 『蒙山和尚六道普說』

中國 元나라 말기의 高僧인 蒙山和尚의 六道普說을 板刻한 책이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간본으로는 대략 15世紀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2종의 간년 미상의 판본과 黃海道 서흥 자비령사에서 1490년에 간행된 판본을 비롯하여 16종 이상의 판본이 존재하고 있으며, 諺解本으로는 1584년에 忠淸道 서산 開心寺에서 간행된 판본이 있다. 보림사 소장의 사천왕상의 복장본인 자비령 사본(1490년간)은 조선조 最古 寺刹本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1509년에 간행된 順天 대광사본, 충청도 홍성 무량사에서 1522년에 간행된 판본, 1575년에 全羅道 海南 금강사에서 간행된 판본이 발굴되었다. 이들 4종은 모두

15) 가람문고본도 있으나 미처 조사하지 못하였다. 추후 보완할 예정이다.

毛亂 以前本の 귀중본으로 평가된다.

3. 의학 관계 한글 자료

1) 『村家救急方』

金正國이 罷職되었다가 復職되어 全羅道 觀察使로 가서 1538年(中宗 33) 南原에서 간행한 것이나, 현재 原刊本은 없고, 咸鏡道 咸興에서 간행된 重刊本이 誠巖文庫 所藏으로 전한다. 刊年은 책의 종지 않은 보존 상태로 말미암아 알 길이 없으나, 觀察使 李友閔 등 列銜이 있는 점에서 李友閔의 觀察使在任期間인 1571年(宣祖 4)부터 1572年 사이로 추정된다.

책의 내용 가운데 藥材 128종을 들고 雙行으로 借字와 한글로써 固有語를 표기한 부분이 國語史의 자료가 된다. 즉, 借字에 의한 表記는 史讀 資料로서, 한글 表記는 傍點과 ‘△’, ‘○’이 폐기된 中世語 末期 資料로서 價値를 갖는다. 특히 한글 表記는 t-口蓋音化와 k-口蓋音化(지름<기름 油)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原刊地인 全羅方言이나 重刊地인 咸鏡方言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으로, 구개음화를 보이는 最初의 文獻이 된다.

(25) 誠巖文庫 所藏 3-540

2) 『簡易辟瘟方』

1524年(中宗 19)에 關西地方에 癘病이 크게 전염하자, 中宗의 命令으로 金順蒙 등이 그 病에 대한 치료법과 예방법을 간단히 설명하여 만든 책으로, 漢文의 原文에 諺解를 붙여 이듬해인 1525년에 간행하였다.

현재 原刊本은 전하지 않고, 1578年(宣祖 11)의 乙亥字로 된 重刊本이 전한다. 高麗大圖書館과 同 晩松文庫의 소장인 있는데, 이들은 모두 1578年の 內賜本이다. 前者를 底本으로 한 影印本이 <民族文化> 7호(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73)에 수록되어 있다. 日本의 宮內廳에도 同 本이 있으나, 牛馬羊猪染疫治療方과 合綴되어 있다. 16世紀의 資料로서 傍點이 없는 活字本이다. 소장 현황은 다음의 (26)과 같다.

(26) ① <奎 3199, 5277, 5695, 7850>

② 國(古M 7672-2)

③ 日本의 宮內廳書陵部(五五五函 十六號) ④ 高麗大學校 圖書館: 貴 203A

⑤ 高麗大學校 晩松文庫 : 貴 203

3) 『牛馬羊猪染疫治療方』

1541年(中宗 36) 봄 平安道에 牛疾이 크게 유행되자, 壬命으로 가축의 전염병과 治療方文을 모아서 그 해 간행한 책으로, 體裁가 漢文의 本文 뒤에 吏讀과 한글로 된 두 가지 飜譯을 실은 것이 특이하다.

현재 日本의 한 個人(岡田信利) 소장본이 原刊本으로 추정되고 있다. 活字本이고 한글에는 傍點도 있다고 한다. 異本은 1578年版 『簡易辟瘟方』에 合綴된 책이다. 版式과 活字, 無傍點인 한글 表記로 보아, 1578년의 重刊本으로 믿어진다. 그 밖에도 1636年(仁祖 14), 1644年(仁祖 22)의 重刊本이 있는데, 모두 1578年版的 覆刻이다.¹⁶⁾ 소장 현황은 다음의 (27)과 같다.

(27) ① 日本의 한 個人(岡田信利) 所藏本 ② 高麗大學校 만송문고 : 貴 만송 522

4) 『分門瘟疫易解方』

1542年(中宗 37) 金安國 등이 壬命에 따라 유행의 瘟疫에 대한 치료법을 분류하고 諺解를 덧붙여 간행한 책이다.

原刊本으로 보이는 乙亥字本の 落張 몇 장(故 黃義敦 씨 소장)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 木版本만이 叢文庫에 전한다. 原刊本の 覆刻으로, 16世紀末의 刊本이 아닌가 한다. 傍點, ‘△’, ‘○’ 등이 모두 사용되었다.

(28) < 叢 古貴 615.135-G413b >

5) 『救荒撮要』

1554년(명종 9)에 간행된 凶年에 대비한 내용의 책으로, 1권 1책의 木版本이다. 명종 9년판은 이인영·황의돈 및 日本圖書館 백정문고에, 그리고 김육에 의해 중수된 것은 성우경과 서울大學校 叢文庫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 소장 현황은 다음의 (29)와 같다.¹⁷⁾

16) 叢文庫 소장본으로 전하는 다른 한 책은 1636년의 海州版이다. ‘△’과 ‘○’을 제외하면 1578年版과 內容에는 큰 차이가 없다.

17) 개인 소장본과 일본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미처 조사하지 못하였다. 추후 보완할 계획이다.

- (29) ① 國(한-28-13) ② <古 9100-7> ③ <-龔 古 361.5-G939>
 ④ <-龔 古 361.5-G939a> ⑤ <가람 古 361.5-G939> ⑥ 國(한-28-43)
 ⑦ 이인영 ⑧ 황의돈 ⑨ 日本圖書館 백경문고
 ⑩ 성우경

4. 譯學 關係 한글 資料

1) 『飜譯老乞大』

崔世珍의 『四聲通解』와 『老朴集覽』, 『通文飽志』 등 관계 문헌에 근거하여崔世珍이 飜譯하여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卷上(故 白淳在 씨 所藏)과 卷下(誠巖文庫 所藏), 全帙 木版本이 전한다. 壬辰亂 이전의 刊本이나, 乙亥字本の 覆刻으로 보이며 또 欄上에 補印(卷下)한 것이 나타나므로 原刊本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老乞大가 商賈의 旅行과 交易에 관한 會話集이어서 특이한 자료라 할 수 있다. 南廣祐 교수에 의하여 卷上(1972年 中央大 大學院)과 卷下(1974年 仁荷大) 모두 影印되었다.

- (30) ① 故 白淳在 씨 所藏(卷上) ② 誠巖文庫(卷下) 3-925

2) 『飜譯朴通事』

책에 譯者와 刊行에 관한 明記가 없으나, 『飜譯老乞大』와 마찬가지로崔世珍이 飜譯하여 간행한 책이다. 『四聲通解』에 飜譯老乞大朴通事凡例가 실려 있어, 1517年(中宗 12)의 『四聲通解』보다 앞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原刊本은 乙亥字本으로 卷上 1책이 國會圖書館(趙誠穆 씨 舊藏)에 소장되어 있다. 이를 底本으로 한 影印本이 1959年 慶北大 大學院에서 간행되었다.

- (31) 國會圖書館 : 貴古 412.8 ㄹ231ㄴ

3) 『老朴集覽』

老乞大와 朴通事 중에서 難解한 語句와 固有名詞 등을 뽑아서 설명한 語彙集으로, 『飜譯老乞大』나 『飜譯朴通事』보다는 늦으나 『四聲通解』보다는 앞서서崔世珍이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乙亥字로 된 原刊本은 현재 東國大圖書

館에 소장되어 전한다. 현재의 原刊本은 앞뒤가 완전하여 1966년 李丙疇 교수에 의한 解題로 影印되었다.

(32) 東國大圖書館 : 494.2 老 13

5. 詩歌 關係 한글 資料

1) 『時用鄉樂譜』

編者 未詳인 樂譜로, 刊年은 16世紀 初期인 中宗 때로 추정된다. 이 책은 현재 通文館 所藏으로 전한다. 1954年 延世大 東方學研究所에서 國故叢刊第 1로 影印하였는데, 이를 1973年 大提閣에서 複製한 바 있다.

2) 『百聯抄解』

初學者에게 漢詩를 가르치기 위하여 七言古詩 중에서 聯句 100개를 뽑아서 한글로 해석을 덧붙인 책이다.

壬辰亂 이전의 刊本은 日本 東京大學에 소장되어 있다. 刊記가 없다. 傍點은 없고, ‘△’, ‘○’은 사용되지만 ‘△’이 상당히 큰 混亂을 보이고 있다. 이 책의 特徵은 漢字의 새김에서 찾을 수 있는 바, ‘不 안득불(4b), 未 아톨미(1a, 5a), 上 마더상(5a)’과 같이 光州版 『千字文』과 큰 一致를 보인다. 長城出身인 金麟厚의 原作일 가능성이 있다. 1576年(宣祖 9) 刊行의 『攷事撮要』의 冊板 目錄에 의하면, 平壤과 長興(全羅道)에 『百聯抄解』의 冊板이 있으므로 이 책이 혹 16世紀 中葉 이후의 長興版이 아닌가 한다.

國內에는 壬辰亂 이후의 重刊本이 여러 전한다. 長城의 筆巖書院, 順天의 松廣寺에는 아직도 冊板이 보관되어 있다. 이들은, 위의 책과는 달리 漢字의 새김을 없애고 漢詩 聯句의 順序를 다르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도 聯句의 순서와 번역이 같지 않다. 東京大學本은 1973年 <國文學研究>(曉星女子大學) 4집에 影印되었고, 壬辰亂 이후의 刊記 未詳의 한 책이 1960年 大邱大學에서 影印으로 출판되었다. 소장 현황은 다음의 (33)과 같다.

- (33) ① 國(古 3641-5) ② <가람 古 811.03-G42b> ③ <·叢 古 811.03-G42b>
 ④ <·叢 古 811.03-G42ba> ⑤ <古 811.5-B146> ⑥ <·叢 古 811.03-G42bb>
 ⑦ 日本 東京大學文學部言語文化學科日本語日本文學(L21604)

6. 語彙 關係 한글 資料

1) 『訓蒙字會』

崔世珍이 지은 3권 1책의 漢字 教科書로, 原刊은 1527年(中宗 22)에 이
록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의 많은 重刊本이 있다.

原刊本은 日本 京都의 叡山文庫 所藏의 乙亥字本으로 알려져 있다.¹⁸⁾ 壬
辰亂 이전의 刊本은 刊年 未詳版인 啓明大 徐在克 교수, 東京大總合圖書館,
日本東京의 尊經閣文庫의 所藏本과 1559年(明宗 14, 平安道 祥原郡)版인 日
本の 内閣文庫 所藏本이 있다. 이들 사이에는 조금씩 漢字의 出入이 있다.
原刊本과 東京大學本은 1971年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尊經閣本은 한글 148
~40號(1966~67)에 각각 影印되었다. 그 밖에 이들을 다시 影印한 책과,
壬辰亂 이후의 刊本을 影印한 것도 있다.

- (34) ① < 蓑 古貴 418.3-C456ha> ② < 蓑 古貴 418.3-C456nb>
 ③ < 想 26, 27, 3754, 12078, 12079> ④ < 想白 古 418.3-C456h-v.1-3>
 ⑤ < 蓑 古 418.3-C456h> ⑥ 國(古 041-2-19) ⑦ 國(한-41-105)
 ⑧ 國(위창古 041-2) ⑨ 國(한-41-46) ⑩ 國(古 3111-41)
 ⑪ 國(한-41-9) ⑫ 國(古 311-3) ⑬ 國(古M 3111-32)
 ⑭ 日本 京都의 叡山文庫 ⑮ 日本 東京大總合圖書館(A00:6460)
 ⑯ 日本 東京의 尊經閣文庫(雜部-字書類 -) ⑰ 日本 内閣文庫(國立公文書館 278-0146)
 ⑱ 徐在克

2) 『千字文』

현재 전하는 最古의 『千字文』은 東京大學에 소장되어 있는, 1575年(宣祖
8) 光州에서 간행된 책이다. 그 다음이 石峯千字文으로 알려진 1583年(宣祖
16)의 책이다. 後代의 『千字文』은 거의 이것을 重刊한 책들이다. 原刊本의
内賜本이 전하고 있다고 하나, 公開된 책 중에서는 金東旭 교수 所藏本이 原
刊本에 가까운 듯하다. 그 밖에 壬辰亂 前의 刊本으로 보이는 책들이 日本의
内閣文庫에 있다. 이 밖에 光州版과 성격이 비슷한 16世紀 刊本이 日本 東京
의 大東急記念文庫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光州版과 内閣文庫의 한 책이

18) 具體的인 所藏 狀況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하지 못하였다. 추후 확인하여 보충
할 예정이다.

1973年 檀國大 東洋學研究所에서 影印으로 간행되었다.

- (35) ① 日本 東京大學總合圖書館(F90:774 F90:183)¹⁹⁾
 ② 日本 內閣文庫(國立公文書館) 306-0154
 ③ 日本 內閣文庫(國立公文書館) 子278-0007
 ④ 日本 內閣文庫(國立公文書館) 別033-0005
 ⑤ 日本 東京 大東急記念文庫(十二函 一架二 一五 一號)²⁰⁾
 ⑥ 金東旭

3) 『新增類合』

漢字 入門書인 類合을 柳希春이 增補하고 修正한 책이다. 현재 전하는 책은 1576年版이거나 그 계통으로 추정되며, 가장 오래되고 좋은 책으로는 木活字로 된 一蓑文庫本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卷上뿐이고, 그것도 張19 後面부터 남아 있다. 같은 木活字로 되었으면서 序跋까지 갖춘 完本은 金東旭 교수 소장으로 보존되어 있다. 壬辰亂 이전의 木版本은 日本의 東洋文庫, 尊經閣文庫, 大野筭(白鳥庫吉 舊藏) 교수 所藏本이 알려져 있다.²¹⁾ 이들은 印出의 先後로 약간의 차이(版心の 張次 등)가 있으나 同一 版本이다. 全羅道 南平縣에서 原刊本을 覆刻한 것이라 생각된다. 近代의 覆刻本으로는 ‘戊寅 3月日海印寺開刊’이란 刊記를 갖는 高麗大圖書館 所藏이 있으나, 조잡한 覆刻本이다.

사용한 한글에는 傍點과 ‘ㅇ’이 폐기되고, ‘△’은 混亂을 보인다. 大字인 漢字의 四聲 表記는 『千字文』과 같이 左上이나 右上의 圈點으로써 각각 上聲과 去聲을 표시하고, 平聲과 入聲을 표시하지 않았다. 金東旭 선생 所藏本을 1972年 東洋學研究所에서 影印하여 간행하였다.

- (36) ① < 一蓑 古 418.3-Y95a> ② < 一蓑 古 418.3-Y91s>
 ③ 日本 尊經閣文庫(雜部-類纂類) ④ 日本 大野筭(白鳥庫吉 舊藏) 教授
 ⑤ 東洋文庫 ⑥ 金東旭
 ⑦ 高麗大學校 圖書館 : 貴 215

7. 口訣 關係 한글 資料²²⁾

19) 따로 몇 권이 있으나 이 두 가지가 刊年 미상이다. 그러나 ‘貴重書’가 아니라 ‘一般圖書’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전혀 다른 성격의 자료일 가능성도 있다.

20) 光州版과 性格이 비슷한 16世紀 刊本이라고 한다.

21) 일본의 東洋文庫本은 아직 확인할 수 없었다. 추후 확인하여 보완할 예정이다.

1) 『論語大文口訣』

論語의 大文을 발췌하여 한글로 口訣을 단 책으로, 傍點은 없으나, ‘△’과 ‘ㅇ’은 사용되고 있다. 16世紀 中葉이거나 그 이후의 자료이지만, 『論語諺解』에 앞서는 資料이다.

(37) 高麗大學校 圖書館 華山文庫 : 貴 183

2) 『南華眞經大文口訣』

南華眞經의 大文에 한글로 口訣을 단 책으로, ‘△’과 ‘ㅇ’ 등이 비교적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各自竝書는 보이지 않는다. 16世紀 中葉의 刊本이라 추정되는 卷5와 卷6 1책이 誠巖文庫에 전한다.

(38) 誠巖文庫 : 3-206

3) 『句解南華眞經口訣』

句解南華眞經의 大文에 한글로 口訣을 단 책으로, 各自竝書와 傍點은 보이지 않으나, ‘△’과 ‘ㅇ’은 나타난다. 모두 10권인데, 卷 1, 2와 7~10(高麗大圖書館 晚松文庫), 3(서울大圖書館 가람文庫), 10(國立中央圖書館), 5~7, 9, 10(誠巖文庫)이 전한다.²³⁾ 그 밖에도 목록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는 句解南華眞經을 (39')에 소개하여 둔다.

(39) ① 高麗大圖書館 晚松文庫(권 1, 2와 7~10) : 貴 48C

② 서울大圖書館 가람文庫(권 3) : <가람 古貴 181.1-1mlgn-v.3>

③ 國立中央圖書館(권 10) : 國(貴-131, 한-11-9)

④ 誠巖文庫(권 5, 6) : 3-195

(39') ① 國(한-11-2)

② 國(古 1264-2)

③ 國(한-11-2-2)

④ 國(한-11-7)

⑤ 國(일산古 1264-15)

⑥ <奎 1680>

⑦ <古 1403-1A>

⑧ <가람 古貴 181.1-1mlgu-v.1-5> ⑨ <古 1403-1>

⑩ <奎 3133>

⑪ <奎 4431>

22) 구결 자료들이 한글 자료인가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도 애초에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였으나, 구결 자료도 국어의 현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단 소개하기로 하였다.

23) 誠巖文庫 소장본은 권 5, 6만이 16세기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권 7, 9, 10은 후대의 것이 아닌가 한다.

4) 『小學集說口訣』

漢文으로 된 책인 『小學集說』의 欄上에 大文의 口訣을 한글로 인쇄한 乙亥字本으로, 刊年 未詳이지만 늦어도 16世紀 中葉의 刊本으로 생각된다. 방점은 없으나, ‘△’와 ‘○’ 등이 정확하게 사용되었다. 현재 卷6 1책이 誠巖文庫에 전한다. 그 覆刻本이 玉山書院에 卷 5, 6, 獨樂堂에 卷 3, 4가 전한다.

- (40) ① 誠巖文庫(권 6) : 3-76 ② 玉山書院(권 5, 6) ③ 獨樂堂(권 3, 4)

5) 『禮記集說大全口訣』

漢文으로 된 책인 禮記集說大全의 欄上에 大文의 口訣을 한글로 인쇄한 책으로, 刊年은 未詳이나 16世紀 中葉의 異本이 아닌가 한다. 口訣이므로 방점은 없으나, ‘△’은 정확히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卷 1, 4, 5, 17, 19(이상 延世大圖書館), 卷 4, 19~21, 24~28(高麗大圖書館 晚松文庫)과 卷10(所在不明) 등이 전한다고 한다.

- (41) ① 延世大圖書館(권 1, 4, 5, 17, 19)²⁴⁾
 ② 高麗大圖書館 晚松文庫(권 4, 19~21, 24~28) : 貴 274

6) 『吏文集覽』

崔世珍이 편찬하여 1539년(중종 34)에 간행한 木版本으로서 ‘吏文’과 ‘吏文續集’이라는, 高麗 末期와 朝鮮 初期에 걸쳐 明나라와 주고받은 外交文書 가운데에서 어려운 語彙를 뽑아서 나오는 차례대로 배열하면서 주로 漢文으로, 간혹 한글로 설명한 註解書이다. 鄉言 또는 方言이라는 명목으로 드문드문 보이는 어휘들은 주목할 만한 國語史의 자료가 된다.²⁵⁾

- (42) ① 藏(3-599) ② 國(古3116-2) ③ 國編?C13-9
 ④ 國編:中 C13-10 ⑤ <가람 古 411.1-C456j> ⑥ <奎 1577>
 ⑦ <-袁 古 411.1-C456j>

24) 현재 확인된 소장 번호는 ‘김준석 390.92 90가-1, 2, 3, 4’이나 좀더 정확한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5) 東國大學校 圖書館에도 소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

8. 韻書 關係 한글 資料

1) 『四聲通解』

崔世珍이 편찬한 中國語의 韻書로, 현재 原刊本은 전하지 않는다. 故 宋錫夏 씨 舊藏本인 乙亥字本이 原刊本으로 추정되었으나 所在 不明이다. 이 乙亥字本の 覆刻으로서, 壬辰亂 이전 刊行으로 보이는 木版本이 日本의 國會圖書館 소장으로 있다. 國內에는 壬辰亂 이후의 活字本이 전한다. 그 중의 하나인 1614年(光海 6)版을 1973年 서울大 文理大 國語國文學科에서 影印하였다.

- (43) ① <奎 1593, 3551, 3885, 3887> ② <-叢 古 485.15-c456s-v.1-2> ③ <奎 3951>
 ④ <가람 古 485.115-c456s> ⑤ 日本 國會圖書館(820-8)

2) 『續添洪武正韻』

『洪武正韻』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편찬된 韻書로, 編者는 未詳이지만 四聲通解凡例와 책 內容의 檢討에서 崔世珍으로 믿어진다. 原刊本은 上下 2권인 듯하나, 현재 卷上 1책이 通文館에 소장되어 있다.

9. 諺簡 關係 한글 資料

1) 諺簡 資料(한글 편자: 31통, 1571년~1603년)²⁶⁾

2) 청주북일면순천김씨묘출토간찰(192통, 1565년~1575년)²⁷⁾

10. 其他 한글 資料

1) 『農事直說』

世宗 때 王命으로 各道 觀察使가 그 地方의 老農에게서 採錄하여 보고한

26) 16世紀의 諺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김일근(1986)으로 미룬다. 김일근(1986)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1586년 작성된 '이응태묘 출토편지'도 새로운 어휘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임을 익명의 심사자께서 일깨워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27) 淸州北一面順天金氏墓出土簡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조건상(1981)을 참조할 것.

우리나라의 農事法을 편찬한 책으로, 현재 原刊本은 전하지 않고 『衿陽雜錄』과의 合本이 있다. 1581年(宣祖 14) 內賜本(서울大圖書館, 日本 國會圖書館 등)이 전하므로, 1581年の 重刊本이 현재로는 가장 빠른 시기의 刊本이다. 이 刊本은 國內外에 널리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 (44) ① 國(한-80-4) ② 國(古M 9110-8) ③ <가람古 630.88-Si62ns>
 ④ <想白古 630.951-Si62n-1686> ⑤ <一蓑古 630.88-Si62ng>
 ⑥ <古 9100-5> ⑦ <古貴 9100-8> ⑧ <古 9100-4-1-3>
 ⑨ 日本 國會圖書館 特1-3019(1686년 刊) ⑩ 日本 國會圖書館 特1-3302(刊年 未詳)
 ⑪ 日本 國會圖書館 せ-36(18세기 후반쯤의 사본)

11. 電算 入力된 한글 資料

위에서 살핀 자료들의 상당 부분은 2000년에 國立國語研究院에서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을 위한 기초 작업 과정의 일환으로 전산 입력 처리되어 있다. 상당 부분 誤打와 띄어쓰기 등의 誤謬가 있어 실제로 이용할 때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原典의 確認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다음의 (45)에 入力이 확인된 자료 목록만을 제시하기로 한다.²⁸⁾

- (45) 1514 續三綱行實圖. 1517 翻譯老乞大, 翻譯朴通事. 1518 翻譯小學, 二倫行實圖, 呂氏鄉約諺解, 正俗諺解. 1525 簡易辟瘟方. 1527 訓蒙字會. 1541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1542 分門瘟疫易解方. 1554 救荒撮要. 1560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1569 七大萬法. 1573 內訓(重刊本). 1575 光州千字文. 1576 新增類合. 1577 野雲自警, 誠初心學人文, 發心修行章. 1579 重刊警民編. 1581 三綱行實圖. 1583 石峰千字文. 1586 小學諺解(陶山書院本). 1590 孝經諺解, 大學諺解, 中庸諺解, 論語諺解, 孟子諺解.

Ⅲ. 研究 現況 - 16世紀 資料 關聯 研究 論著 目錄²⁹⁾

Ⅳ. 結 論

지금까지 우리는 16세기 한글 자료들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 16

28) 제시되지 않은 목록 가운데에도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이미 입력 처리가 되어 있는 자료는 물론 있을 수 있다.

29) 紙面上의 制約으로 인하여 16세기 국어 관련 <研究 論著 目錄>은 韓國語文教育研究會 홈페이지 <語文研究>의 '掲載論文 목록자료'에 올려 놓았음.

세기 한글 자료들을 대상으로 所藏者 및 所藏處를 조사하였으며, 그들의 內容書誌學的인 記述도 도모하였다. 아울러 影印本도 살펴, 影印 대상이 된 자료의 目錄은 물론 대상으로 삼은 底本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각 문헌에 대한 研究 論著 目錄 작성을 통하여 개별 자료들이 연구된 현황을 파악하고, 각 문헌에 관한 그간의 研究 論著 目錄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연구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자료의 目錄은 물론 관심의 영역 밖에 존재해 왔던 主題 目錄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와 함께 각각의 문헌에 대한 간략한 국어 관련 해제를 붙여 연구자로 하여금 대상 자료의 선택 과정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본 조사·연구의 주된 목적은 국어의 사적 연구 과정에 필요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³⁰⁾ 역사적인 연구를 진행하면서 影印本에만 기대는 안이한 태도를 되돌아볼 수 있는 반성의 기회는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원전 자료에 대한 不斷한 관계 유지를 통하여 당시의 言語現實에 다가가고, 도서관에서 잠자고 있는 자료들에 대하여 인식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 參 考 文 獻 ◇

- 국립국어연구원(1996),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1-중세국어-』.
 _____(1997),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근대국어-』.
 김일근(1986), 『언간의 연구』, 건국대학교출판부.
 安秉禧(1979), 「中世語의 한글資料에 대한 綜合的인 考察」, <규장각> 3, pp.109~147.
 이상은(1987), 『古書目錄』, 보경문화사.
 한재영(1996), 『16세기 국어 구문의 연구』, 신구문화사.

30) 익명의 심사자께서 오수열본 『내훈』의 낙장과 『장수다라니경언해』, 『무예제보』, 『무예제보번역속집』, 그리고 『목재일기』~제3책 이면에 필사되어 있는 『설공찬전』³¹⁾의 5종의 국문소설 등 새로이 발굴되어 나온 한글 문헌에 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여 주셨다. 추후 보완작업을 통하여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

■ ABSTRACT

A Study on Information about the Ancient Korean References

—Focused on Korean Materials in 16th Century—

Han, Jae-young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orean materials in 16th century. Understanding the current situation includes the studies on the material as well as who possesses the Korean material in 16th century and where they are. The interest in who possesses them is to approach the language situation in the specific period by having continuous relationship with the original reference and to recognize the necessity to find out the references that are sitting in the libraries.

In addition, the purpose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the studies on individual reference by listing the related studies is to realize the necessity to confirm the list of the references and subjects that have been accomplished. By doing so, it is expected to estimate the list of references that have not been focused and of subjects that are not in the common interes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more accurate information that is essential to the historical study of Korean language.